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 Preferences about the Elderly Care Facilities

신희식* 추연철** 윤충열***
Shin, Hee-Sik Chu, Yeon-Cheol Youn, Chung-Yeul

Abstract

The senior adults which are a central manpower of economic activity of the nation decreased and the elderly sustenance allowance already went over 10%. And th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of the woman which are the supporter of the unpaid the elderly within the family is increasing. This big change is expected to support awareness. To respond to these changes,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system for elderly with the job of retirement lifestyles of the elderly, a figure that is needed for the ceremony. The elderly medical treatment facility that began in 2008 the elderly long-term medical treatment law enforcement because of the demand is expected to grow. It is forecast with the fact that the data which is fundamental is most important will become that old person medical treatment facility of the middle-aged layer which is a central role of the protector who decides the facility use of the preliminary consumer of the elderly care facility and currently the very the elderly and manhood ceremony and the preference to pla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undamental data about the elderly care facility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awareness & perferences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of the senior adults & the elderly.

키워드 : 고령자, 노인요양시설, 선호도

Keywords : Elderly, Elderly Care Facilities, Preference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출생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 추세는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30여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7월에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 7.0%)로 진입하였고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 14.0%)에 도달하는 기간을 약 20여년 즉, 2020년경으로 예상하였으나¹⁾, 2008년 현재 10.3%에 이르고 있어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예측보다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3명²⁾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조사되어 이러한 과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러한 과정을 겪은 외국에서는 100여년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 20여년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경우,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및 발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됨과 동시에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인구의 유병율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전국노인 실태조사결과 전체 노인의 90.9%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증가될 것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기본 생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치매, 척추질환 등은 주로 기본적인 판단력과 운동성이 저하되는 질병으로 단순히 개인적 문제라는 관점으로는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2008년 치매 유병률 조사³⁾'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유병률이 8.4%로 42만 여명에 이르며, 앞으로 매 20년 마다 치매노인의 수가 2배로 증가되고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활동의 중심인력인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해 2000년 노인부양비가 이미 10%를 넘었고 2050년에는 69.4%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가정내의 실질적인 무급노인수발자라 할 수 있는 중·장년층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이전과 같은 부양의식과는 다른 변화가 예고된다.

* 정희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석사과정

** 정희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박사과정 수료

*** 정희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9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5

2) 선진국의 경우 1.64명임.

3) 치매 유병률 조사, 보건복지부, 2009, pp.127

4)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경제부, 2005. 동 자료는 'The Impact on demand, factor market and growth'(OECD, 2005.3)를 토대로 IMF의 WEO와 GFSR 등의 고령화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발췌·요약한 보고서임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개선과 함께 예비 고령인구인 중·장년층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식의 파악이 요구된다. 특히 2008년부터 본격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고령자 자신의 입소에 있어 자신보다는 이들의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비슷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중·장년층의 자녀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즉, 예비 수요자인 50~60대와 고령자의 시설 이용을 결정하는 보호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30~40대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의식과 선호도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호자와 소비자인 30~60대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인구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경기도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라북도로 하였다. 조사지역인 전북 전주시는 최근 20여년 동안 인구집중 및 도시 확대에 의해 주로 농경지였던 주변 지역으로 택지개발이 확장된 지역으로 서비스산업이 지역 내 총생산액의 51.2%⁵⁾를 차지할 만큼 생산성보다는 소비성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기 남부지역은 전형적인 소비형 도시⁶⁾라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이후에 수도권 인구의 분산정책의 하나인 위성도시 건설사업의 결과로 베드타운(bed town)의 성격을 가진 도시이다. 조사대상은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의 결정에 영향력을 갖을 것으로 판단되는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그리고 예비 이용자로 판단되는 50대 이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관련법규 등을 통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중·장년층의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대한 견해와 미래에 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 전제되는 조건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는 2009년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30대 후반 이상의 경기도 거주자 400명과 전북 거주자 400명에 배포하였으며, 각각 243부, 276부로 총 519부가 회수되어 65.5%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부실 기재된 90부를 제외하고 42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분석에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다중분석을 이용하였으며

5) 2008년 전북도 서비스업활동지수, 전북통계청, 2008

6) 러시아의 도시지리학자 다비도비치 등은 위성도시를 소비형 위성도시와 생산형 위성도시로 분류했다. 소비형 위성도시에 속하는 것은 주택도시이다. 직장은 중심도시에 있고 주택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다.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응답자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노인요양시설의 일반적 고찰

2.1 노인요양시설 관련 법령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법령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노인복지법은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주요 기준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대상자의 범위, 시설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준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1~2등급에 해당하며 적절한 부양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을, 노인전문병원은 이 기준과 더불어 임종을 앞둔 경우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1.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수요자 특성	변경 전	변경 후
주거복지시설	적절한 부양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양로/실비양로/유료양로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신설)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의료복지시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적절한 부양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실비노인/유료노인/무료노인/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위한 규정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신체적 약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일반적인 생활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설내외에서의 이동과 이용상 편리성을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건축법상의 분류상에서 각각 노유자 시설과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⁷⁾.

2.2 관련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노인요양시설의 이용결정은 고령자 본인의 의사와 수발자 유무(동거가족 유무)라는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의 시설 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이용 유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수단적 일상생활(IADL)과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등 행동적 장애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⁸⁾. 또한 고령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거주자일수록,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수입이 높을수록, 현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요양시설이용의사가 높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가족요인(배우자나 자녀 등 수발자 유무)과, 활동성 수준에 따른 이용의사를 보면 가족 등의 수발자가 있을수록 활동성이 높을수록 요양시설에 대한 이용의사가 낮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노인요양시설의 미래의 수요자인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식과 선호도에 대한 연구¹⁰⁾에 의하면 이들은 건강이 나빠져 자립생활이 어려울 상황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여부에 따라 이용시설을 결정하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시설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모들은 이미 80세 전후로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이용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단기적 관점에서 중·장년층의 인식은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학력,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 능력, 종교적 특성 등이 주거 관련 변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주거에 대한 생각은 우선 이들의 주거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주요한 요인이 되며, 생존을 위한 수단, 생활을 담는 그릇, 경제적 보장 및 재산 가치, 사회적 지위와 정체감의 상징, 사회적 관계망 구축의 도구, 신체적·경제적 독립성의 표현, 사생활의 자유 보장, 생활기능 저하의 보완 및 수용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할 수 있다¹¹⁾. 그런데 노년기 주거 디자인에 대한 요구¹²⁾를 보면, 노년층에 비해 장년층은 방수는 작더라도 욕실, 거실, 부엌은 커야하고, 원룸형의 2침실형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년층이 노년기의 특수한 상황을 짐작하는 상황에서의 요구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반면, 중년층이 아닌 노년층의 요구만을 반영할 경우, 새롭고 다양한 주거경험이 있는 현재의 중년층을 위한 노년기 주거 디자인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노년기 가구의 대부분이 현재의 거주 지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하므로, 중·노년층의 보다 일반적인 요구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¹³⁾.

2009년 노인복지시설 현황¹⁴⁾에 의하면 서울과 광역시, 제주를 제외한 8개도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중 30.7%는 행정구역상 시설의 주소가 시(市)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1996년에는 10.0%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며, 시(市) 지역내 시설이라 해도 실제로는 중심부와는 거리가 있어 생활권은 오히려 해당 시에 인접한 군(郡)내지는 읍(鎭) 지역과 밀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및 콘텐츠가 부족한 도시근교 또는 농촌지역에서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과는 다른 규모와 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인해 또 하나의 지역시설로서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요구된다.

표 2. 노인요양시설 지역현황

- 단위:개소,명(%) -

구분	시 지역		시의외 지역		계	
	시설수	입소자수	시설수	입소자수	시설수	입소자수
경기	296(87.5)	11,693(87.8)	39(12.5)	1,625(12.2)	335(100.0)	13,318(100.0)
강원	48(56.5)	2,219(65.7)	37(43.5)	1,159(34.3)	85(100.0)	3,378(100.0)
충북	25(35.7)	1,348(48.1)	45(64.3)	1,453(51.9)	70(100.0)	2,801(100.0)
충남	40(60.6)	1,486(59.3)	26(36.4)	1,022(40.7)	66(100.0)	2,508(100.0)
전북	92(75.4)	3,311(73.9)	30(24.6)	1,171(26.1)	122(100.0)	4,482(100.0)
전남	35(36.5)	1,451(41.6)	61(63.5)	2,041(58.4)	96(100.0)	3,492(100.0)
경북	76(73.8)	3,301(73.9)	27(26.2)	1,165(26.1)	103(100.0)	4,466(100.0)
경남	60(64.5)	2,497(61.7)	33(35.5)	1,551(38.3)	93(100.0)	4,048(100.0)
계	672(69.2)	27,306(70.9)	298(30.7)	11,187(29.1)	970(100.0)	38,493(100.0)

주) 2008년 12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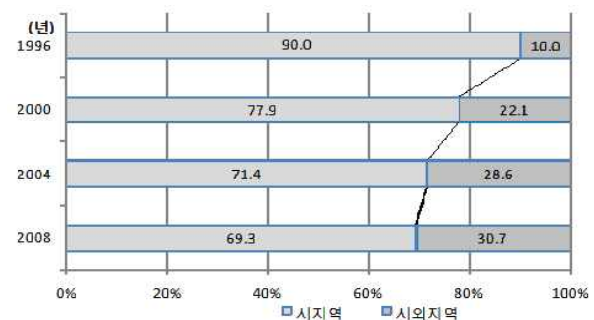


그림 1.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지역의 경년변화

- 7) 노인요양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황은경 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5, pp.39-46.
- 8) 의사결정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노인의 요양시설서비스 이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정기, 한국사회복지학회논문집, 2008,8, pp.129-150
- 9) 지방 중소도시거주 노인의 요양시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기영 외,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제 10권 4호, pp. 175-194
- 10) 노인요양시설 입주 의사가 있는 한국중년층의 노후 전망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선호, 권오정 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5,1, pp.85-96
- 11) 노인복지학, 최성재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426-428
- 12) 예비노인의 노후상황별 노인주거단지 선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논, 2004

- 13) 중·노년층의 요구분석에 의한 노년기 주거 디자인의 기초연구, 박수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5, pp.49-58
- 14)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3. 조사결과 분석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성별, 학력, 직업, 수입 등 일반적인 사회적 특성과 가족구성, 거주주택유형, 거주지역 등 주거관련 특성,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여성이 조금 많으며, 현재 부모들의 부양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거나 관심이 많은 40대(61.1%), 30대(20.6%)가 전체 응답자 중 80%에 이른다. 대졸이상이 65.6%, 무교인 경우가 52.0%이며 기독교인은 31.2%이고, 직업은 일반 사무/교육직(44.4%), 전업주부(27.8%)의 순이다. 또한 이들의 월평균 가계수입은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9.9%, 300만 원이하가 28.1%로 이는 200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427만원(4인 이하가구)에 미치지 못하며,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1.9%이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단위:명(%) -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성별	남성	28(15.6)	119(66.5)	26(14.5)	6(3.4)	179(100.0)
	여성	59(24.3)	139(57.2)	26(10.7)	19(7.8)	243(100.0)
	계	87(20.6)	258(61.1)	52(12.3)	25(5.9)	422(100.0)
학력	중졸이하		1(11.1)	5(55.6)	3(33.3)	9(100.0)
	고졸	17(18.7)	59(64.8)	12(13.2)	3(3.3)	91(100.0)
	대졸이상	54(28.3)	110(57.6)	22(11.5)	5(2.6)	191(100.0)
계	71(24.4)	170(58.4)	39(13.4)	11(13.4)	291(100.0)	
종교	기독교	30(24.4)	71(57.7)	13(10.6)	9(7.3)	123(100.0)
	천주교	10(27.0)	19(51.4)	7(18.9)	1(2.7)	37(100.0)
	불교	2(6.9)	18(62.1)	6(20.7)	3(10.3)	29(100.0)
	무교	31(26.1)	74(62.2)	13(10.9)	1(0.8)	119(100.0)
	계	74(23.6)	184(58.8)	41(13.1)	14(4.5)	313(100.0)
가족유형	3대	2(14.3)	11(78.6)		1(7.1)	14(100.0)
	2대	40(19.2)	147(70.7)	20(9.6)	1(0.5)	208(100.0)
	부부/단독	8(24.2)	3(9.1)	7(21.2)	15(45.5)	33(100.0)
	계	50(19.6)	161(63.1)	27(10.6)	17(6.7)	255(100.0)
거주지역	도시중심	51(20.5)	144(57.8)	38(15.3)	16(6.4)	249(100.0)
	도시근교	18(17.8)	74(73.3)	5(5.0)	4(4.0)	101(100.0)
	계	69(19.7)	218(62.3)	43(12.3)	20(5.7)	350(100.0)
주택유형	단독주택	7(15.2)	12(26.1)	9(19.6)	18(39.1)	46(100.0)
	저층공동	16(37.2)	20(46.5)	6(14.0)	1(2.3)	43(100.0)
	고층공동	46(17.2)	187(70.0)	30(11.2)	4(1.5)	267(100.0)
	계	69(19.2)	219(61.5)	45(12.6)	23(6.5)	356(100.0)
직업	일반사무/교육	42(23.7)	118(66.7)	16(9.0)	1(0.6)	177(100.0)
	전문/관리/기술	7(15.9)	21(47.7)	15(34.1)	1(2.3)	44(100.0)
	농업/자영	12(17.9)	43(64.2)	8(11.9)	4(6.0)	67(100.0)
	전업주부	23(20.7)	66(59.5)	13(11.7)	9(8.1)	111(100.0)
	계	84(21.1)	248(62.2)	52(13.0)	15(3.8)	399(100.0)
월가계수입	~200만원	33(31.4)	46(43.8)	13(12.4)	13(12.4)	105(100.0)
	~300만원	19(19.2)	59(59.6)	17(17.2)	4(4.0)	99(100.0)
	~400만원	7(10.0)	55(78.6)	7(10.0)	1(1.4)	70(100.0)
	400만원~	11(14.9)	56(75.7)	6(8.1)	1(1.4)	74(100.0)
	계	70(20.1)	216(62.1)	43(12.4)	19(5.5)	348(100.0)

조사대상자의 주거지역은 도시중심(71.5%) 거주자가 많으며, 고층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74.6%에 이른다. 또한 10대에서 20대의 자녀를 둔 2대 가족이 81.6%이며, 5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 50% 정도는 부부 또는 독신가구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고학력자로서 도시중심부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과 동거가족유형의 질문에 대한 높은 무응답율은 개인적인 정보노출에 대한 거부감과 기체의 번거로움 때문으로 보여진다.

3.2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대한 견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전달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34.5%가 '보행이 곤란한 경우', 다음으로는 치매인 경우(27.3%), 생활이 곤란한 경우(19.0%)라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노인요양시설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법적 입소대상자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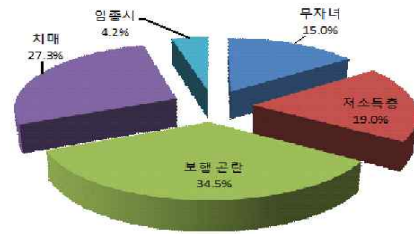


그림 1.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노인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정도는 연령, 학력, 거주주택유형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의사에서는 연령, 종교, 거주주택유형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 3.9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별 관심도를 보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응답자(4.52)에서 가장 높으며, 현재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고 10여년 이후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50대(4.19)와 40대(4.09) 순이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담이 적은 30대(3.57)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자일수록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대졸 이상인 경우(4.52)가 가장 높으며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4.25)가 공동주택(저층, 고층)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은데, 이는 고령이 되었을 경우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공동주택보다는 거주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독주택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응답자 중 배우자나 부모의 노인요양시설 이용 경험이

표 4.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심

- 단위:명(%) -

구분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계	M	X ²	
(계)	168 (39.2)	103 (24.0)	145 (33.8)	12 (2.8)	1 (0.2)	429 (100.0)	3.99		
연령	30대	19 (19.2)	17 (24.2)	46 (53.2)	5 (3.4)	87 (100.0)	3.52	376**	
	40대	105 (39.5)	70 (27.1)	81 (31.4)	4 (1.6)	1 (0.4)	261 (100.0)		4.05
	50대	27 (51.9)	10 (19.2)	13 (25.0)	2 (3.8)		52 (100.0)		4.19
	60대	17 (69.1)	5 (22.7)	2 (5.6)	1 (2.8)		25 (100.0)		4.52
	계	165 (39.1)	102 (24.2)	142 (33.6)	12 (2.8)	1 (0.2)	422 (100.0)		3.99
학력	중졸이하	4 (44.4)		2 (22.2)	3 (33.3)	9 (100.0)	3.56	263**	
	고졸	34 (37.4)	23 (25.3)	30 (33.0)	3 (3.3)	1 (1.1)	91 (100.0)		3.95
	대졸이상	75 (39.3)	45 (23.6)	66 (34.6)	5 (2.6)		191 (100.0)		3.99
	계	113 (38.8)	68 (23.4)	98 (33.7)	11 (3.8)	1 (0.3)	291 (100.0)		3.97
거주주택유형	단독	23 (48.9)	14 (29.8)	9 (19.1)	1 (2.1)	47 (100.0)	4.25	262**	
	저층공동	13 (30.2)	4 (9.3)	25 (58.1)		1 (2.3)	43 (100.0)		3.65
	고층공동	101 (30.7)	73 (26.7)	92 (33.7)	7 (2.6)		273 (100.0)		3.98
	기타	1 (33.3)	1 (33.3)	1 (33.3)			3 (100.0)		4.00
	계	138 (37.7)	92 (25.1)	127 (34.7)	8 (2.2)	1 (0.3)	366 (100.0)		3.98

- (계) : 결측값 포함 수치임. - M : 평균값
 - * p<.05, ** p<.01, *** p<.001

있는 간접 경험자의 경우는 총 응답자 중 124명, 29.1%이며, 학력과 직업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대한 관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고학력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중졸이하의 경우는 분석에 필요한 응답율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외하도록 하였다. 2008년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¹⁵⁾은 376만원으로 고졸 가구주(233만원)의 1.61배라는 점과 관련지어 보면, 도시중심지역에서 중산층이하의 조건으로 배우자 또는 부모를 직접 부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시설의 이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직업에서도 나타나는데 전업주부의 만족도(3.83)가 모든 변인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배우자 또는 부모의 부양의 실질적인 담당자로서의 전업주부의 부담감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또는 자신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겠는가에 대해서는 평균 3.52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연령별 이용의사에서는 60대 이상(4.20)이 가장 높고 50대(3.80), 40대(3.53)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불교(3.69)가 가장 높으며, 단독주택 거주자(3.81)의 이용의사가 공동주택 거주자보다 상

15) 국민소득 통계, 한국은행, 2008년

표 5. 노인요양시설의 간접 경험자의 만족도

- 단위:명(%) -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	M	X ²	
(계)	13(10.7)	46(37.7)	55(45.1)	8(6.6)	122(100.0)	3.52		
학력	중졸이하			1(100.0)	1(100.0)	2.00	151*	
	고졸	2(8.7)	11(47.8)	7(30.4)	3(13.0)	23(100.0)		3.52
	대졸이상	7(12.5)	20(35.7)	27(48.2)	2(3.6)	56(100.0)		3.57
직업	계	9(11.3)	32(40.0)	34(42.5)	5(6.3)	80(100.0)	3.56	
직업	일반사무/교육	3(7.9)	15(39.5)	19(50.0)	1(2.6)	38(100.0)	3.53	180*
	전문/관리/기술		4(28.6)	9(64.3)	1(7.1)	14(100.0)	3.21	
	농업/자영업	3(12.5)	5(20.8)	11(45.8)	5(20.8)	24(100.0)	3.25	
	전업주부	7(20.0)	16(45.7)	11(31.4)	1(2.9)	35(100.0)	3.83	
	계	13(11.7)	40(36.0)	50(45.0)	8(7.2)	111(100.0)	3.52	

- (계) : 결측값 포함 수치임. - M : 평균값
 - * p<.05, ** p<.01, *** p<.001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거주주택 유형에서 시설에 대한 관심도와 장래 이용의사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30대 이하인 경우 부모세대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자신 또한 젊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6. 노인요양시설의 장래 이용의사

- 단위:명(%) -

구분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계	M	X ²	
(계)	70 (16.5)	136 (32.1)	173 (40.8)	36 (8.5)	9 (2.1)	424 (100.0)	3.52		
연령	30대	7 (8.1)	20 (26.0)	45 (52.3)	12 (14.0)	2 (2.3)	86 (100.0)	3.21	41.5***
	40대	38 (14.8)	89 (34.8)	104 (40.6)	21 (8.2)	4 (1.6)	256 (100.0)	3.53	
	50대	11 (22.0)	18 (36.0)	17 (34.0)	2 (4.0)	2 (4.0)	50 (100.0)	3.80	
	60대	13 (52.0)	6 (24.0)	5 (20.0)		1 (4.0)	25 (100.0)	4.20	
	계	69 (16.5)	133 (31.9)	171 (41.0)	35 (8.4)	9 (2.2)	417 (100.0)	3.69	
종교	무교	15 (12.6)	30 (25.2)	61 (51.3)	9 (7.6)	4 (3.4)	119 (100.0)	3.36	261*
	기독교	20 (16.8)	40 (33.6)	47 (39.5)	12 (10.1)		119 (100.0)	3.57	
	불교	8 (27.6)	10 (34.5)	7 (24.1)	2 (6.9)	2 (6.9)	29 (100.0)	3.69	
	천주교	4 (10.8)	15 (40.5)	16 (43.2)	2 (5.4)		37 (100.0)	3.57	
	기타	2 (40.0)	3 (60.0)				5 (100.0)	4.40	
	계	49 (15.9)	98 (31.7)	131 (42.4)	25 (8.1)	6 (1.9)	309 (100.0)	3.72	
거주주택유형	단독	17 (36.2)	11 (23.4)	13 (27.7)	5 (10.6)	1 (2.1)	47 (100.0)	3.81	38.3***
	저층공동	7 (16.3)	9 (20.9)	23 (53.5)	2 (4.7)	2 (4.7)	43 (100.0)	3.40	
	고층공동	41 (15.1)	94 (34.7)	111 (41.0)	22 (8.1)	3 (1.1)	271 (100.0)	3.55	
	기타			2 (66.7)		1 (33.3)	3 (100.0)	2.33	
계	65 (17.9)	114 (31.3)	149 (40.9)	29 (8.0)	7 (1.9)	364 (100.0)	3.27		

- (계)는 결측값 포함 수치임. - M : 평균값
 - * p<.05, ** p<.01, *** p<.001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전문적인 요양을 위해서'가 66.1%로 가장 많으며 '자녀의 직장 등으로 인한 별거'(19.8%),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9.9%) 순으로 나타나,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견해라 하겠다. 반면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내 문제이기 때문'(33.5%)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입소할 본인의 거부'(37.7%), '시설이란 이미지가 싫어서'(24.3%)라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노쇠한 부모를 시설이란 곳에 가족과 격리시킨다는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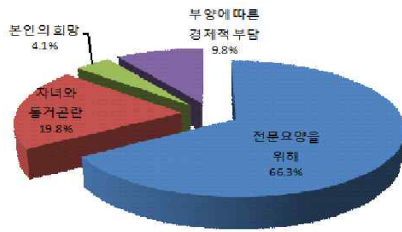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요양시설 이용 이유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견해를 분석해 본 결과 응답자의 연령, 학력, 거주주택유형에서 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도에 비해 이용의사는 낮으며, 고령자이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높은 관심도와 이용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용 유경험자의 만족도에서는 다른 변인에 비해 전업주부의 만족도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고령가족의 부양부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에 대한 선호경향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부모 또는 자신의 이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소 대상자나 응답자의 활동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심리적, 물리적 조건과 시설의 주변환경 특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용할 시설의 결정과정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지역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령과 가족유형에서 각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족과의 거리'(62.2%)라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고향 또는 거주 등으로 잘 아는 지역'(21.2%), '현 거주지역 부근'(16.4%)순으로 나타나 가족과의 심리적 거리를 최소화 시키려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대 이하에서는 입소대상자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현 거주지역 부근을 선호하는 등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3대 동거가족인 경우(45.5%)에는 현 거주지역 부근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부부/단독가구인 경우(30.0%)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3대 동거가구나 부부/단독가구처럼 고령자의 생활을 가까이 관찰하거

나 자녀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7.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선정시 고려사항

- 단위:명(%) -

구분	가족과의 거리	현 거주 지역부근	고향, 거주 경험지역	기타	계	X ²
(계)	258(62.2)	68(16.4)	88(21.2)	1(0.2)	415(100.0)	
연령	30대	51(60.7)	10(11.9)	23(27.4)	84(100.0)	27.2***
	40대	161(64.4)	35(14.0)	54(21.6)	250(100.0)	
	50대	24(48.0)	15(30.0)	10(20.0)	50(100.0)	
	60대	16(66.7)	8(33.3)		24(100.0)	
계	252(61.8)	68(16.7)	87(21.3)	1(0.2)	408(100.0)	
가족 유형	3대	6(54.5)	5(45.5)		11(100.0)	15.4*
	2대	137(66.2)	26(12.6)	43(20.8)	207(100.0)	
	부부/단독	18(60.0)	9(30.0)	3(10.0)	30(100.0)	
계	161(64.9)	40(16.1)	46(18.5)	1(0.4)	248(100.0)	

- (계)는 결측값 포함 수치임. -. * p<.05, ** p<.01, *** p<.001

심리적인 거리의 기준을 현재 자신의 거주지로 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과 가족유형에서 각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시간 이내의 거리'(56.1%)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다음으로 '30분 이내'(31.1%)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40대 이하인 경우와 2~3대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1시간 이내를, 50대 이상인 경우와 부부/단독가구인 경우에는 30분이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고령자이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8. 현거주지에서 노인요양시설까지의 소요시간

- 단위:명(%) -

구분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상관 없다	계	X ²	
(계)	131(31.1)	236(56.1)	22(5.2)	32(7.6)	421(100.0)		
연령	30대	18(20.7)	58(66.7)	6(6.9)	5(5.7)	87(100.0)	24.1**
	40대	73(29.0)	144(57.1)	14(5.6)	21(8.3)	252(100.0)	
	50대	23(45.1)	21(41.2)	2(3.9)	5(9.8)	51(100.0)	
	60대	15(62.5)	9(37.5)			24(100.0)	
계	129(31.2)	232(56.0)	22(5.3)	31(7.5)	414(100.0)		
가족 유형	3대	3(21.4)	9(64.3)		2(14.3)	14(100.0)	15.0*
	2대	63(30.7)	116(56.6)	14(6.8)	12(5.9)	205(100.0)	
	부부/단독	19(57.6)	14(42.4)			33(100.0)	
계	85(33.7)	139(55.2)	14(5.6)	14(5.6)	252(100.0)		

- (계)는 결측값 포함 수치임. -.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연령, 학력, 직업, 가족유형에서 각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도시근교'(54.0%)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다음으로는 '휴양지'(29.3%)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과 전문/관리/기술직과 주부인 경우와 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사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 휴양지보다 도시 중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변인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전업주부들과 여성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60대 이상에서는 농촌과 휴양지에 대한 선호도가

12%에 불과해 여성들의 시설선택의 특성을 알 수 있다.

표 9. 노인요양시설의 선호지역

- 단위:명(%) -

구 분	도시 중심	도시 근교	농어촌	휴양지	기타	계	X ²	
(계)	34(8.0)	230(54.0)	20(4.7)	125(29.3)	17(4.0)	426(100.0)		
연령	30대	5(5.7)	52(59.8)	4(4.6)	22(25.3)	4(4.6)	87(100.0)	21.9*
	40대	15(5.8)	134(52.1)	11(4.3)	87(33.9)	10(3.9)	257(100.0)	
	50대	8(15.7)	26(51.0)	3(5.9)	12(23.5)	2(3.9)	52(100.0)	
	60대	6(25.0)	14(58.4)	1(4.2)	2(8.3)	1(4.2)	24(100.0)	
	계	34(8.1)	226(53.9)	19(4.5)	123(29.4)	17(4.1)	419(100.0)	
학력	중졸		4(44.4)		3(33.3)	2(22.2)	9(100.0)	16.2*
	고졸	8(8.8)	40(44.0)	5(5.5)	32(35.2)	6(6.6)	91(100.0)	
	대졸	13(6.8)	117(61.3)	8(4.2)	48(25.1)	5(2.6)	191(100.0)	
	계	21(7.2)	161(55.3)	13(4.5)	83(28.5)	13(4.5)	291(100.0)	
직업	일반사무/교육	5(2.8)	105(59.7)	8(4.5)	55(31.3)	3(1.7)	176(100.0)	31.6**
	전문/관리/기술	6(13.6)	24(54.5)		10(22.7)	4(9.1)	44(100.0)	
	농업/자영	4(6.0)	31(46.3)	6(9.0)	22(32.8)	4(6.0)	67(100.0)	
	전업주부	18(16.4)	50(45.5)	5(4.5)	2(8.3)	5(4.5)	110(100.0)	
	계	33(8.3)	210(52.9)	19(4.8)	199(30.0)	16(4.0)	397(100.0)	
가족유형	3대		7(50.0)		6(42.9)	1(7.1)	14(100.0)	21.0**
	2대	15(7.2)	120(57.4)	8(3.8)	60(28.7)	6(2.9)	209(100.0)	
	부부/단독	9(28.1)	18(56.3)		5(15.6)		32(100.0)	
	계	24(9.4)	145(56.9)	8(3.1)	71(27.8)	7(2.7)	225(100.0)	

-. (계)는 결측값 포함 수치임. -. * p<.05, ** p<.01, *** p<.001

시설의 주변환경 조건에서 가장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령, 가족유형, 거주주택유형에서 각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데, '의료기관과의 연계성'(49.3%), 즉 의료기관과의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자연경관'(27.7%), '대중교통의 접근성'(14.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선택시 고려사항, 선호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60대 이상, 부부/단독가구에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나 도심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특히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33.3%, 42.4%로 비교적 낮은 선호도로 나타났다.

표 10. 노인요양시설의 주변환경 조건에 대한 선호

- 단위:명(%) -

구 분	자연 경관	대중 교통의 접근성	지역주민 교류	의료기 관연계	도심과 연계	계	X ²	
(계)	118(27.7)	61(14.3)	12(2.8)	210(49.3)	25(5.9)	426(100.0)		
연령	30대	22(25.3)	13(14.9)	1(1.1)	46(52.9)	5(5.7)	87(100.0)	21.9*
	40대	78(30.5)	27(10.5)	9(3.5)	128(50.0)	14(5.5)	256(100.0)	
	50대	14(26.9)	11(21.2)	2(3.8)	22(42.3)	3(5.8)	52(100.0)	
	60대	4(16.7)	9(37.5)		8(33.3)	3(12.5)	24(100.0)	
	계	118(28.2)	60(14.3)	12(2.9)	204(48.7)	25(6.0)	419(100.0)	
가족유형	3대	3(21.4)	2(14.3)	2(14.3)	6(42.9)	1(7.1)	14(100.0)	18.7*
	2대	60(28.8)	23(11.1)	4(1.9)	110(52.9)	11(5.3)	208(100.0)	
	부부/단독	8(24.2)	10(30.3)		14(42.4)	1(3.0)	33(100.0)	
	계	71(27.8)	35(13.7)	6(2.4)	130(51.0)	13(5.1)	255(100.0)	
거주주택유형	단독	8(17.4)	15(32.6)		20(43.5)	3(6.5)	46(100.0)	23.9*
	저층공동	8(18.6)	5(11.6)	2(4.7)	24(55.8)	4(9.3)	43(100.0)	
	고층공동	81(29.9)	27(10.0)	7(2.6)	142(52.4)	14(5.2)	271(100.0)	
	기타	1(33.3)			2(66.7)		3(100.0)	
계	98(27.0)	47(12.9)	9(2.5)	188(51.8)	21(5.8)	363(100.0)		

-. (계)는 결측값 포함 수치임. -. * p<.05, ** p<.01, *** p<.001

이처럼 시설의 수요자들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또는 지역 거주자들과의 교류보다는 도시지역과의 연계를 중요시 한다는 점은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이라 하여 설치에 거부감을 보이는 지역주민들의 시각으로 인해 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이 중요한 지역시설로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의 대부분이 도시외곽 또는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상황에서 지역 시설로서의 기능을 확장시킴으로서 지역에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외부와의 접촉이 한정되어있는 입소자들에게는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선택과 함께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 가족유형, 학력, 종교에서 각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요양 프로그램(84.1%)를 고려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운영주체(6.8%), 종교와의 관련성(5.1)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인 경우와 부부/단독가구, 그리고 기독교인 경우는 종교와의 관련성(각 17.4%, 16.1%, 12.7%)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8년 12월 현재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 중 44.3%¹⁶⁾ 정도가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기독교와 연관된 경우가 많은 점과 관련지어 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수요자들에게 요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요자들에게 변별력을 가진 요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요양 프로그램이 시설내외의 활동에 속한다면 지역과의 교류 프로그램은 시설내외의 활동을 함께 연계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환경의 고려사항

- 단위:명(%) -

구 분	요양 프로그램	운영 주체	종교와의 관련성	지역교류 프로그램	계	X ²	
(계)	348(84.1)	28(6.8)	21(5.1)	17(4.1)	414(100.0)		
연령	30대	72(85.7)	4(4.8)	7(8.3)	1(1.2)	84(100.0)	17.7*
	40대	211(84.4)	18(7.2)	8(3.2)	13(5.2)	250(100.0)	
	50대	42(84.0)	5(10.0)	2(4.0)	1(2.0)	50(100.0)	
	60대	17(73.9)		4(17.4)	2(8.7)	23(100.0)	
	계	342(84.0)	27(6.6)	21(5.2)	17(4.2)	407(100.0)	
가족유형	3대	7(53.8)	2(15.4)	2(15.4)	2(15.4)	13(100.0)	15.7*
	2대	175(85.4)	12(5.9)	10(4.9)	8(3.9)	205(100.0)	
	부부/단독	25(80.0)		5(16.1)	1(3.2)	31(100.0)	
	계	207(83.1)	14(5.6)	17(6.8)	11(4.4)	249(100.0)	
학력	중졸	6(66.7)		2(22.2)	1(11.1)	9(100.0)	12.9*
	고졸	70(77.8)	9(10.0)	7(7.8)	4(4.4)	90(100.0)	
	대졸	158(87.8)	11(6.1)	5(2.8)	6(3.3)	180(100.0)	
	계	234(83.9)	20(7.2)	14(5.0)	11(3.9)	279(100.0)	
종교	무교	104(88.9)	9(7.7)		4(3.4)	117(100.0)	25.7**
	기독교	89(75.4)	11(9.3)	15(12.7)	3(2.5)	118(100.0)	

16) 2009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9

불교	22(78.6)	2(7.1)	2(7.1)	2(7.1)	28(100.0)
천주교	33(97.1)		1(2.9)		34(100.0)
기타	5(100.0)				5(100.0)
계	253(83.8)	22(7.3)	18(6.0)	9(3.0)	302(100.0)

-. (계)는 결측값 포함 수치임. -. * p<.05, ** p<.01, *** p<.001

4. 결론

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들 고령자의 시설 이용을 결정하는 보호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예비수요자인 중·장년층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의 30.7%는 시(市)이외의 지역인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고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60%이상으로 파악되었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2. 현재 이용의 주 결정자인 30~40대인 자녀세대와 가까운 미래의 이용자가 될 50~60대 모두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해서 보통 이상(3.99)의 관심을 보이는 데 50~60대의 관심도가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 중 29.1%가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이 노인이용시설을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간접적인 이용만족도는 보통이상(3.52)이며, 장래의 이용의사(3.52)도 높게 나타났다. 주거의 편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거주자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심과 장래의 이용의사가 높으며, 고학력자일수록 실제 이용만족도가 높고, 비교적 중산층에 속하며 월소득이 일정한 직업군과 부양의 실질적인 부담감이 높은 전업주부의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이용시설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족과의 거리'를 먼저 고려하고 '1시간이내'의 '도시근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거주지역 부근'과 '30분 이내'에 대해서는 50~60대가, 반면에 '고향 등'과 '1시간이내'에 대해서는 30~40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신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이용에 대해서는 부모의 고향 등 과거의 경험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요양시설의 주변 및 운영 조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와 '요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도심과의 연계' 등 현 거주지인 도시와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이거나 부부/단독가구, 또

는 단독주택거주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저조한 관심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종교와의 관련성' 및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시설들 중 다수가 종교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지역성보다도 개인의 종교적 성향이 시설의 선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 변인별 비교분석 결과, 예비 수요자이자 실제로 입소시에는 결정권이 미미한 50대 이상이거나 부부 또는 단독 가구인 경우에 자녀 등의 가족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도시중심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실제 시설의 입소 후에도 현 거주환경 및 지인,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심리요인에서 기인함을 예상할 수 있겠다. 반면에 실질적인 입소 결정자인 40대 이하인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친근감이나 자연경관 등 입소 당사자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견해가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에 입소대상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의 구체적인 건축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200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7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7
- 치매 유병률 조사, 보건복지부, 2009, pp.127
-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경제부, 2005.
- 노인요양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황은경 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5, pp 39-46.
- 의사결정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노인의 요양시설서비스 이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정기, 한국사회복지학회논문집, 2008.8, pp.129-150
- 지방 중소도시거주 노인의 요양시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기영 외,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제10권 4호, pp. 175-194
- 노인요양시설 입주 의사가 있는 한국중년층의 노후 전망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선호, 권오경 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5.1, pp.85-96
-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21권 3호, pp.113-124.

(접수: 2009.10.10, 심사완료: 2009.11.11)